

Contents

Chapter 1. 경제환경

Step 1	세계경제	06
	총괄	07
	미국	08
	중국	09
	일본	10
	유로존 · IBK진출 신흥국	11
Step 2	국내경제	12
	총괄	13
	소비·수출	14
	투자	15
	정부재정	16
	금융시장	17

Chapter 2. 산업환경

Step	산업환경	18
	종합	20
	반도체	21
	자동차	22
	조선	23

Chapter 3. 중소기업환경

Step	중소기업환경	24
	생산	26
	설비투자	27
	자금사정	28
	소상공인	29
	중소기업 정책	30

Step 1 세계경제

총괄

미국

중국

일본

유로존 · IBK진출 신흥국

Step 2 국내경제

총괄

소비·수출

투자

정부재정

금융시장

Chapter 1.

경제환경

Step 1.

세계경제

총괄

미국

중국

일본

유로존 · IBK진출 신흥국

세계경제

총괄

현황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며 점진적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가별 성장 차이 지속

- **미국** _ 견조한 민간소비와 투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통화정책 전환도 본격화되며 성장세 지속
- **중국** _ 정부주도의 경기부양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과 부동산 경기 위축 영향으로 성장률 둔화
- **일본** _ 민간소비 부진이 장기화 되고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약화되며 성장률 둔화
- **유로존** _ 소비심리 회복 지연이 내수 침체로 이어지며 0%대 성장률 지속

전망 2025년 세계경제는 물가 안정 및 통화정책 전환을 기반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겠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가 하방 리스크로 작용

세계 경제성장률

(%)	2023년	2024년*	2025년*
세계	3.3	3.2	3.2
선진국	1.7	1.8	1.8
미국	2.9	2.8	2.2
유로존	0.4	0.8	1.2
일본	1.7	0.3	1.1
신흥국	4.4	4.2	4.2
중국	5.2	4.8	4.5
인도	8.2	7.0	6.5
베트남	5.0	6.1	6.1
인도네시아	5.0	5.0	5.1
폴란드	0.2	3.0	3.5

주: e는 전망치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4. 10.)

세계 물가상승률



주: 직전 3개월 대비 최근 3개월 간 물가상승률의 연율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4. 10.)

미국



금리인하로 인한 우호적인 소비·투자여건 조성에도 불구하고 2024년 대비 성장세 둔화 전망

- 이자부담, 자금조달 비용 감소로 상품·서비스 지출여력 확대 및 설비투자 지속 증가, 부진했던 주거용 투자도 회복 예상
 - ※ 개인이자지출(전동비, %) : 50.8(2023.Q3) → 30.6(Q4) → 24.2(2024.Q1) → 14.8(Q2) → 5.0(Q3)
 - ※ 설비투자(전기비연율, %) : Δ1.1(2023.Q3) → 0.7(Q4) → 0.3(2024.Q1) → 9.8(Q2) → 11.1(Q3)
 - ※ 주택착공건수(만 건) : 137.4(2024.1) → 154.9(2) → 128.7(3) → 135.2(4) → 131.4(5) → 132.9(6) → 123.7(7) → 136.1(8) → 135.4(9) → 131.1(10)
- 다만 2024년 높은 성장률에 기인한 기저효과와 고용시장 둔화 지속, 제조업 경기 위축 등으로 성장폭 제한
 - ※ Fed 실업률 전망 변화(2024.6 → 9월, 중간값 기준) : (2024) 4.0 → 4.4% / (2025) 4.2 → 4.4%
 - ※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 51.6(2024.6) → 49.6(7) → 47.9(8) → 47.3(9) → 48.5(10)

트럼프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른 물가 재상승 가능성 등 경제 불확실성 증대

- 무차별적 관세 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무역 분쟁 심화, 이민 제한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가 교역 감소·생산비 증가로 이어질 경우 경기 위축 가능성
- 다만, 법인세 인하 등 감세 확대 및 규제 완화, 미국 내 제조업 공급망 구축 추진은 투자 증가 요인
 - ※ 트럼프 공약 실현 시, 실질 GDP는 2028년까지 기준치 대비Δ2.8% ~ Δ9.7% 감소 추정
(기준치= 연평균1.9% 성장을 가정한 실질 GDP, 출처: PIE)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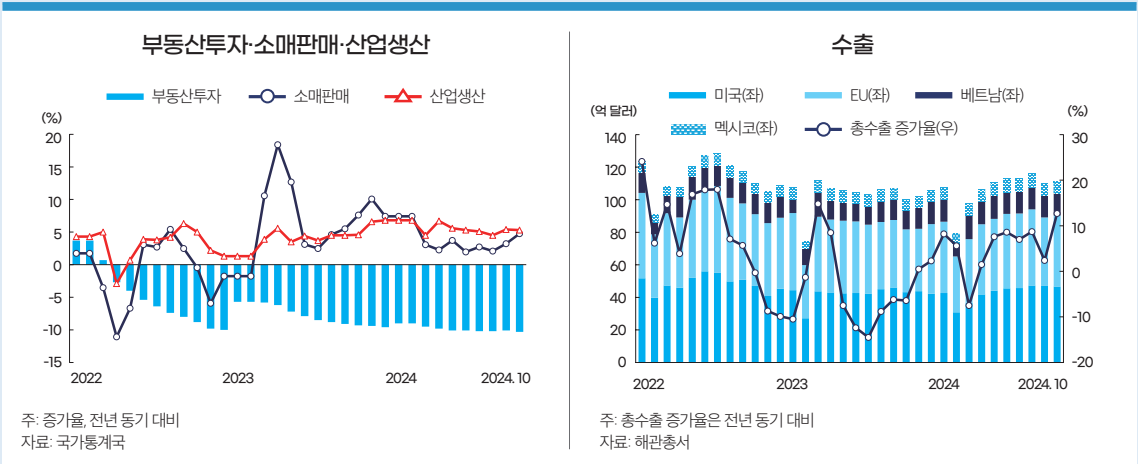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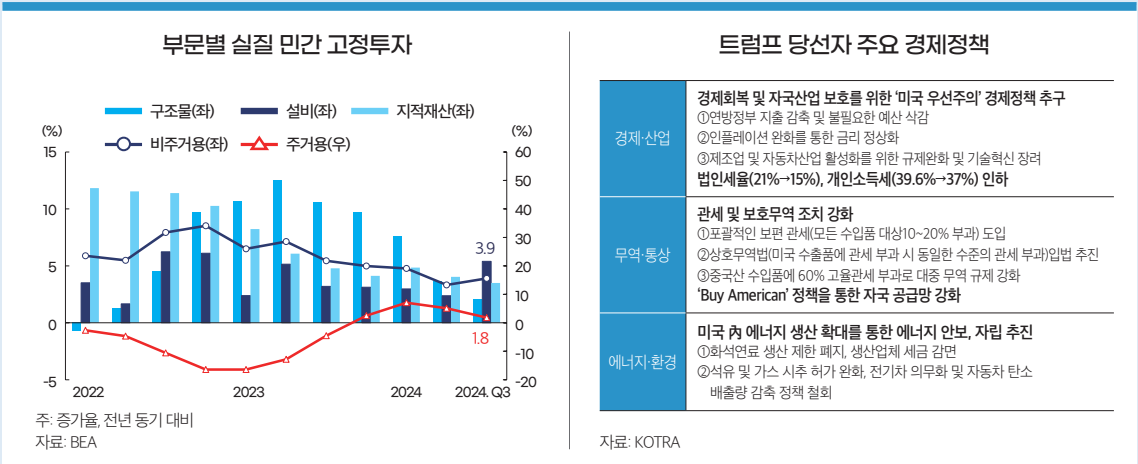


부동산 시장 침체와 부진한 소비가 지속되며 성장을 제약할 전망

- 부동산_ 주택가격 하락 지속 및 부동산개발회사 부실 우려 확대로 정부 주도의 부양정책 효과가 기대를 밑돌며 부동산 경기 개선 난항 예상
 - ※ 부동산가격 증가율(전동비, %) : Δ8.57(2024.1) → Δ8.68(4) → Δ6.02(7) → Δ5.84(8) → Δ5.98(9) → Δ5.25(10)
- 소비_ 가계소득 둔화 및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자산가치 감소가 소비심리를 제약해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저물가 기조도 장기화 될 전망
 - ※ 평균임금 증가율(전동비, %) : 7.6(2020) → 9.7(2021) → 6.7(2022) → 5.8(2023)
 - ※ 소비자심리지수(기준=100, pt) : 88.9(2024.1) → 88.2(4) → 86.0(7) → 85.8(8) → 85.7(9)

트럼프 정부의 對中 제재 심화로 수출 하방 압력 확대

- 상방 요인_ 동남아·남미 등 생산시설 확대를 통한 對美 우회수출 지속, 수출대상국 다변화를 통한 對中 무역 제재 대응
- 하방 요인_ 미국의 對中 제재 동참 국가 확대와 우회수출국 대상 추가 관세 및 제재 대상 품목 확대(기존 완성품+원자재·중간재·부품) 가능성에 따른 하방 압력
 - ※ 미국의 관세정책 변경으로 인한 중국의 對美 수출 감소 예상액은 연 Δ1,151.6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2023년 중국의 연간 대미 수출액의 22.8% 수준(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對中 압박에 대해 중국이 맞대응 시 무역갈등 고조가 예상되나 중국의 경기 위축으로 인해 상호 합의 및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도 높음



일본



민간소비의 점진적 개선과 설비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 전망

- **소비** _ 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득 증가, 엔저 압력 완화에 따른 수입물가 안정 등으로 민간소비 여력 확대

※ 가계 실질 가처분소득(전기비, %) : $\Delta 0.3(2023.Q3) \rightarrow \Delta 0.2(Q4) \rightarrow 2.3(2024.Q1) \rightarrow 1.9(Q2)$

※ 실질 소비활동지수(전기비, %) : $\Delta 0.8(2024.Q1) \rightarrow 0.2(Q2) \rightarrow 0.9(Q3)$

- **투자** _ 기업 노동력 부족 대응을 위한 디지털 전환 등 무형자산 투자 가속화 및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

* TSMC 구마모토 1공장 준공 및 2공장 추가 착공(2024년 6월) 등 해외기업의 일본 내 투자도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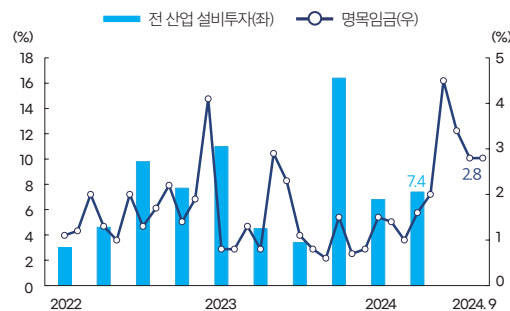
수출은 증가할 전망이나,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등이 증가폭을 제한할 가능성

- **수출** _ 2024년 자동차 산업의 일시적 공급교란*이 정상화되고, 정부의 정책지원**에 힘입어 증가 전망

* 2024년 1분기 도요타 등 5개 메이저 기업의 품질인증 부정행위에 대한 생산·출하 금지 처분으로 생산 감소(도요타 2024년 8월 일본 내 생산량 $\Delta 22\%$ 감소, 전동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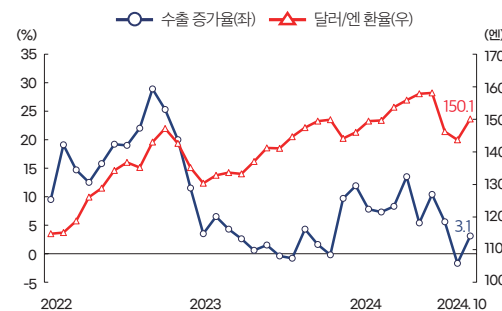
** 일본 정부는 디지털 혁신기술(자율주행, 전기차, IoT)을 적용한 '모빌리티DX 종합 전략'을 통해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추진

설비투자·임금



주: 전년 동기 대비 전 산업 설비투자는 금융·보험업 제외, 설비투자는 분기 자료
자료: 재무성, 후생노동성

수출·환율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환율은 월 평균
자료: 재무성, 일본은행

유로존/ IBK진출 신흥국



유로존 소비는 개선되었으나 수출 및 산업활동 부진으로 경기 회복은 제한적

- **긍정 요인** _ 물가 안정*과 금리인하, 종전^{終戰} 기대감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누적된 저축에 기반한 양호한 소비여력이 민간소비 개선을 뒷받침

* 물가상승률(전동비, %, Eurostat) : $2.8(2024.1) \rightarrow 2.6(2) \rightarrow 2.4(3) \rightarrow 2.2(8) \rightarrow 1.7(9) \rightarrow 2.0(10)$

- **부정 요인** _ 높은 임금과 에너지 비용*, 투자 위축, 무역갈등 고조에 따른 글로벌 교역감소로 제조업 생산 부진**지속 전망

* 러·우 전쟁, 중동 분쟁 장기화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운송비 상승

** 제조업 생산 증가율(전동비, %, Eurostat) : $\Delta 5.7(2024.1) \rightarrow \Delta 3.6(3) \rightarrow \Delta 2.4(5) \rightarrow \Delta 2.1(7) \rightarrow \Delta 2.0(8)$

신흥국 고부가가치 산업(반도체, IT, 전기차 등) 육성을 위한 국내외 투자 확대를 기반으로 견조한 성장세 유지

- **인도·인도네시아** _ 자립경제 강화 및 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 투자,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한 탈중국 가속화 수혜 등이 고성장을 뒷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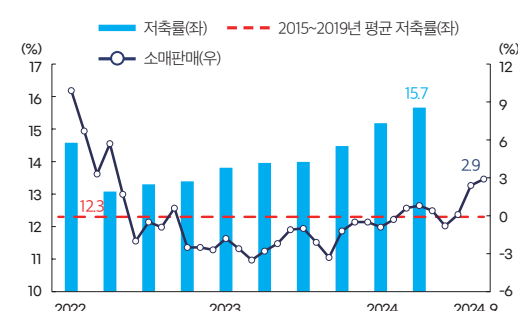
※ 정부지출 증가율(%) : (인도) $10.52(2022/2023) \rightarrow 7.08(2023/2024) \rightarrow 7.37(2024/2025, \text{예산안 기준})$,
(인도네시아) $11.1(2022) \rightarrow 0.8(2023) \rightarrow 6.5(2024, \text{예산안 기준}) \rightarrow 6.9(2025, \text{예산안 기준})$

- **베트남·폴란드** _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는 하방 요인이거나, 해외 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인프라 지원 지속으로 민간 투자 증가 및 내수 개선 기대

※ 베트남 FDI 증가율(전동비, %) : $13.7(2022) \rightarrow 3.5(2023) \rightarrow 8.8(2024.10)$

※ 폴란드 투자 지출 증가율(전동비, %) : $14.2(2022) \rightarrow 19.9(2023) \rightarrow 3.9(2024.Q2)$

유로존 가계저축률·소매판매 지수



주: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저축률은 분기 자료
자료: Eurostat

신흥국 경제성장 주요 방안

국가명	투자촉진 방안
인도	- 첨단제품 생산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글로벌 제조 허브' 추진 - 인프라 지출 예산 1,32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 증액하여 제조업 육성 기반 마련
인도네시아	- 국가부채를 현재 GDP의 39%에서 50%로 확대하며 전기차 등에 재정지출 확대 - 현지 생산 전기차 인도네시아 부품 비중 확대 및 보조금 지급
베트남	- FDI 확대 위해 세제혜택(법인세·지방세 감면, 수입세 면제 등) 부여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토지·공장 장기임대계약, 투자비용지원 등 추진
폴란드	- EU가 요구하는 정치·경제·사회제도 개혁을 통해 투자자금 확보(2021년~2027년 760억 유로)
필리핀	- 2025년 정부지출 2024년 대비 10.1% 증대를 통해 내수 활성화 추진(상수도 등 인프라 개선, 디지털 전환 촉진, 사회복지개선 등에 우선 투자)

자료: 국내외 연구기관 및 각국 정부기관 보도자료 등

Step 2.

국내경제

총괄

소비·수출

투자

정부재정

금융시장

국내경제

총괄

현황 수출 증가가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더딘 내수 회복으로 부문간 격차 지속

- **소비** _ 고금리 장기화, 높은 수준의 체감물가* 지속 등이 가계의 구매력 약화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며 민간소비 둔화

* 소비자 체감 물가상승률(전동비, %) : 3.8(2024.1) → 3.7(6) → 3.6(7) → 3.5(8) → 3.4(9) → 3.3(10)

- **수출** _ 글로벌 교역 확대, IT경기 회복에 힘입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 지속

- **설비투자** _ IT경기 호조에도 불구하고 고환율·고금리에 따른 비용 부담, 기업 심리 개선 지연* 등으로 설비투자 위축

* 제조업 심리지수전망(기준=100, 계절조정) : 92.7(2024.1) → 91.7(4) → 89.1(5) → 90.3(6) → 92.2(7) → 95.5(8) → 92.6(9) → 96.5(10) → 91.6(11)

- **건설투자** _ 2023년부터 누적된 신규 착공 및 수주 감소 영향 가시화, 비용 상승 등으로 둔화 흐름 지속

전망 2025년 국내경제는 완화적 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내수 부진이 다소 완화되겠으나,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며 성장폭 축소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및 물가 전망

(%)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1.4	2.8	2.0	2.4	1.8	2.4	2.1
민간소비	1.8	1.0	1.8	1.4	2.2	2.3	2.2
설비투자	1.1	Δ2.3	2.6	0.2	6.5	2.2	4.3
건설투자	1.5	0.8	Δ2.2	Δ0.8	Δ3.4	1.8	Δ0.7
재화수출	2.9	8.4	5.6	6.9	3.1	2.6	2.9
재화수입	Δ0.3	Δ1.4	4.6	1.6	5.2	2.1	3.6
소비자물가	3.6	2.8	2.2	2.5	2.2	2.1	2.1

주: e는 전망치, 전년 동기 대비
자료: 한국은행(2024. 8.)

주요기관 경제성장률 전망

(%)	2024년*	2025년*	전망 시점
IMF	2.5	2.2	2024. 10
OECD	2.5	2.2	2024. 9
KDI	2.2	2.0	2024. 11
정부	2.6	2.2	2024. 7
IB평균	2.3	2.0	2024. 11

주: e는 전망치, 전년 동기 대비
자료: 각 발표기관

소비·수출



소비 가계의 실질 구매력 확대 및 자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 개선

- 물가 안정 흐름이 지속되며 가계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며 가계의 소비여력 확대

*가계 실질처분가능소득(전동비, %) : $\Delta 1.2(2023.Q1) \rightarrow \Delta 5.9(Q2) \rightarrow \Delta 1.6(2024.Q1) \rightarrow 0.8(Q2)$

- 다만 누적된 가계부채와 이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내수 부진 장기화로 인한 소비심리 회복 지연이 소비를 제약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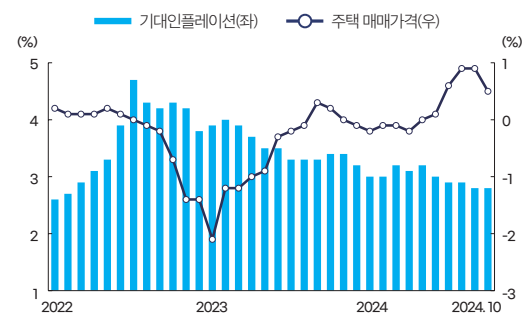
수출 IT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는 지속되겠으나 글로벌 교역 둔화* 등으로 증가폭 점진적 축소

*트럼프 정부의 정책(관세 인상·법인세 인하·이민 제한·재정 적자 확대) 가정 시, 세계 교역량은 2026년까지 4% 감소 추정(IMF WEO, 2024년 10월)

- 생성형 AI 도입 확대, 글로벌 디지털 전환 가속에 따른 고성능 반도체 수요 증가 등으로 IT 관련 품목의 수출 증가세 지속
- 반면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 트럼프 보호무역 정책에 따른 수출 감소*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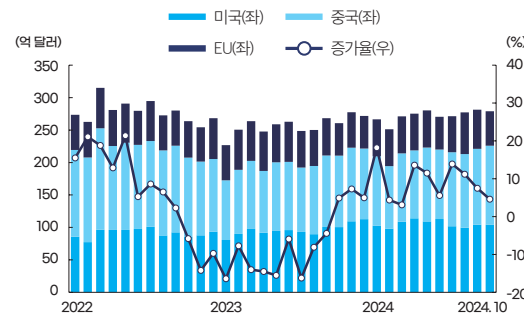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정책 실행에 따른 한국의 對美 수출액은 최대 304억 달러, 총 수출액은 최대 448억 달러 감소 추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년 10월)

기대인플레이션·주택 가격



주: 주택가격은 서울 아파트 기준 전월 대비 상승률
자료: KB, 한국은행

수출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 관세청

투자



설비투자 IT경기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여건도 완화되면서 설비투자는 개선될 전망

- 글로벌 피벗 본격화에 따른 비용 부담 축소,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투자 여건이 완화되며 IT 부문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증가

*제조업 외감기업 매출액 증가율(전기비, %) : $\Delta 6.9(2023.Q2) \rightarrow 3.3(2024.Q1) \rightarrow 7.3(Q2)$

매출액 영업이익률(전동비, %) : $2.9(2023.Q2) \rightarrow 5.4(2024.Q1) \rightarrow 7.1(Q2)$

- 美 대선 종료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는 상방 요인인 반면, 트럼프 보호무역 정책에 따른 수출 감소 및 산업 정책 변화는 하방 리스크

건설투자 PF관련 불확실성 지속, 신규 수주와 착공 감소 영향 등으로 건설투자 회복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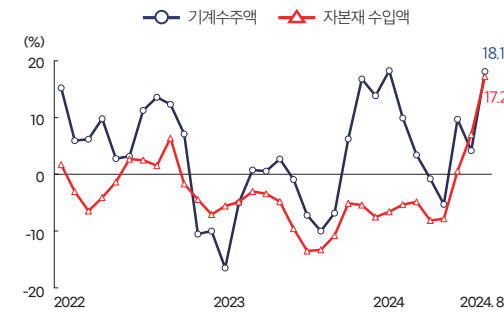
- 2023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신규 수주 및 착공 위축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2025년 정부의 SOC 예산도 축소*

*정부SOC 지출 예산(조 원) : $26.4(2024년 본예산) \rightarrow 25.5(2025년 예산안)$, 2025년 SOC 예산 전년 대비 3.6% 감소

- 부동산 PF 구조조정 관련 리스크, 높은 수준의 건설자재 가격 지속에 따른 비용 부담 등도 건설투자 회복 지연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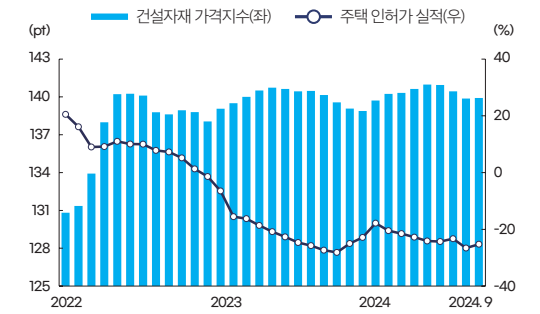
※금융권PF 대출 연체율(기말 기준, %) : $2.01(2023.Q1) \rightarrow 2.17(Q2) \rightarrow 2.42(Q3) \rightarrow 2.70(Q4) \rightarrow 3.55(2024.Q1) \rightarrow 3.56(Q2)$

기계수주액·자본재 수입액



주: 3개월 이동 평균, 전년 동기 대비, 기계수주액은 선박·선박용 내연기관 제외
자료: 무역협회, 한국은행

건설자재 가격지수·주택 인허가 실적



주: 건설용 중간재 가격(2015=100), 주택인허가실적은 3개월 이동 평균 전년 동기 대비
자료: 한국은행

정부재정



정부지출 건전재정기조에 중심을 둔 예산안 편성으로 확대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은 쉽지 않을 전망

-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개선하고, 국가채무 증가를 억제하며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 지속

주요내용 서민·취약계층 지원, R&D 투자 및 첨단산업 육성 등에 집중

- **지원** _ 저소득층 생계급여 인상(+11.8만 원/월), 공공주택 공급 확대(20.5 → 25.2만 호), 노인 일자리 확대 및 기초연금 인상(24.4조 원) 등
- **경제** _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AI, 바이오, 반도체 등) 육성**, 녹색금융(녹색전환보증 1.5조 원, 펀드·융자 7.4조 원)공급 확대 등

* 금융지원(정책자금 상환 연장, 전환보증 공급, 대환대출 지속 지원), 유망 소상공인 대상 스케일업 전용 자금 신설, 한계 소상공인 대상 매출발 기금 규모 확대 및 폐업 수반 비용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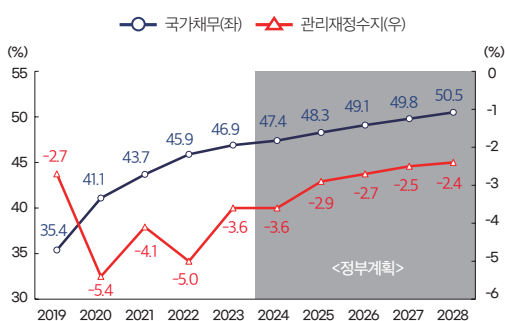
** AI 혁신 펀드 1,000억 원 조성, 바이오파운드 리센터 설립(113억 원), 반도체 저리대출 4.3조 원 신규 공급 등

정부예산안 지출 부문

(조원)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B-A)	증가율
전체	656.6	677.4	+20.8	3.2%
보건·복지·고용	237.6	249.0	+11.4	4.8%
교육	95.2	98.5	+3.3	3.5%
문화·체육·관광	8.7	8.8	+0.1	1.3%
환경	12.5	13.0	+0.5	4.0%
R&D	26.5	29.7	+3.2	11.8%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0	28.3	+0.3	1.1%
SOC	26.4	25.5	△0.9	△3.6%
일반·지방행정	110.5	111.3	+0.8	0.6%
기타	116.7	120.4	+3.7	3.2%

주: 1) 본예산 기준, 2) 기타는 농림·수산·식품, 국방,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등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재정 중기 목표



주: GDP 대비
자료: 기획재정부

금융시장



금리 글로벌 피벗 본격화 및 인플레이션 둔화 지속 등으로 기준금리 인하

- **기준금리** _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과 국내 물가 안정 흐름, 경기 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압력 확대 등으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되겠으나,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우려, 트럼프 정부 정책 시행에 따른 국내 영향 등을 고려해 인하 속도는 점진적일 것
- **시장금리** _ 시장에 반영된 피벗 기대감, 한·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 등으로 시장금리 변동 폭은 크지 않을 전망

환율 美 물가 재상승 가능성, 지정학적 불안 장기화 등으로 강달러 기조 유지

- 트럼프 정부의 포괄적 보편관세 부과, 재정지출 확대 등이 미국 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해 연준의 통화정책 속도 조절 가능성
 - 미국 재정적자* 심화 시, 국채 발행 증가 →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며 달러 강세에 영향
- * 트럼프 공약 이행 시, 미국 재정적자는 2025년부터 향후 10년간 7.5조 달러 추가 예상(CRFB)

금리



주: 미국은 상단기준, 시장금리는 국고채 10년물
자료: Fed, 한국은행

환율·달러인덱스(DXY)



주: 달러인덱스(DXY)는 1973.3=100, 환율은 월 평균 종가 기준(2024. 11. 19. 기준)
자료: NYSE, 한국은행

종합

반도체

자동차

조선

Chapter 2.

산업환경

산업환경

종합

현황 제조·서비스 간, 업종 간 생산 격차 심화되는 가운데, 제조 생산 증가가 서비스 생산 둔화를 보완

- **제조업** _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이 높은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은 생산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철강·이차전지 산업 등은 회복이 부진
- **서비스업** _ 하반기 생산은 개선됐으나, 사업체 수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의 부진으로 서비스업 전체 회복세는 둔화
※ 월별 수출액 대비 주요 산업 비중(2024.10, %, 산업부) : 반도체(21.8), 자동차(10.8), 석유화학(6.9), 철강(5.0), 조선(3.5), 이차전지(1.1)
※ 도·소매업 생산 지수 증가율(전동비, %, 통계청) : △1.1(2024.1) → △5.7(2) → △5.8(3) → △1.3(4) → △1.8(5) → △3.2(6) → △4.2(7) → △0.9(8) → △0.7(9)

전망 조선업은 호조세를 이어가나 그 외 제조업 불확실성 증가와 서비스업 생산 둔화가 뚜렷해질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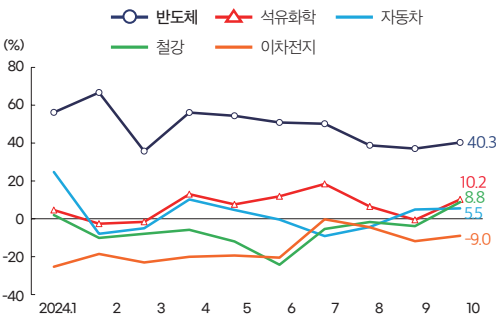
- **제조업** _ 트럼프 재선에 따라, 반도체·자동차의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철강·이차전지의 약세는 지속되는 가운데 조선업의 호조는 계속될 전망
- **서비스업** _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생산은 다소 증가할 전망이나, 도·소매업의 계속된 부진으로 서비스업 전체 생산 증가율 둔화 현상 지속
※ 2024년 9월 서비스업 생산지수 증가율(전동비, %, 통계청) : 운수·창고(4.5), 정보·통신(△0.2), 숙박·음식점(△1.8), 부동산(△2.8), 도·소매(△0.7)

국내 산업별 생산지수 증가율

(%)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Q1	Q2	8월
총산업	5.5	4.8	1.0	2.9	2.1	1.1
제조업	8.8	0.9	△2.6	6.2	5.0	3.7
반도체	28.7	5.4	△2.0	44.7	22.3	10.3
자동차	6.1	9.1	10.2	△3.2	△0.8	△0.1
석유화학	7.0	△7.9	△3.0	△2.0	5.0	4.8
철강	5.1	△8.4	2.7	0.4	△8.4	△2.2
조선	△7.6	21.0	2.3	△7.3	5.3	21.9
이차전지	14.3	17.4	△7.7	△44.0	△43.7	△23.1
서비스업	5.0	7.0	3.2	2.1	1.6	0.9

주: 전년 동기 대비
자료: 통계청

국내 산업별 수출액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자료: 산업부 월별 수출입 동향

반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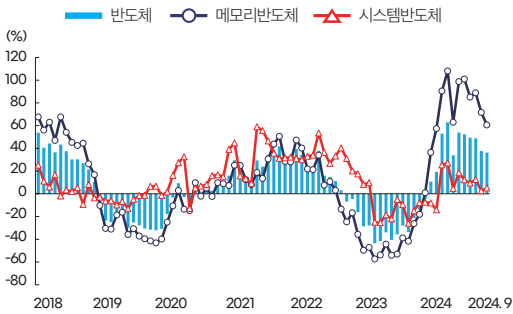
현황 글로벌 IT 경기 개선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로 반도체 시장 본격 회복세 전환

- 글로벌 IT 섹터 재고 조정이 마무리 되고, 메모리 가격 안정과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2023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
- AI 애플리케이션 확산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 제품 수요와 AI 반도체 수요 증가로 2024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두 자릿 수 성장

전망 고부가 가치 메모리 수요 증가는 예상되나,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축소 시 국내 업체 수익성 악화 우려

- ① 생성형AI 확산 강화에 따른 고부가 가치 메모리^{HBM} 수요 증가 및 가격 상승
② 글로벌 데이터 트래픽 증대로 인한 서버 수요 증가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개정 시, 국내 업체의 단기적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
다만 중국 반도체 경쟁 기업 견제로 일부 반사이익도 공존
※ Gartner 글로벌 AI 반도체 매출 전망(2024. 5월, \$M) : 53,662(2023) → 71,252(2024) → 91,955(2025), 2023년 대비 약 71% 상승 예상

반도체 수출



주: 전년 동기 대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

(백만 달러, %)		전망	
		매출액	증가율
2022년	Gartner	599,562	0.2
	WSTS	574,084	3.3
2023년	Gartner	533,025	△11.1
	WSTS	526,885	△8.2
2024년*	Gartner	624,000	17.1
	WSTS	611,231	16.0
2025년*	Gartner	721,100	15.5
	WSTS	687,380	12.5

주: e는 전망치
자료: Gartner, WSTS(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 기관)

자동차



현황 수출은 증가세 둔화 속 양호한 실적을 기록, 생산은 내수 부진 및 기저효과 영향으로 감소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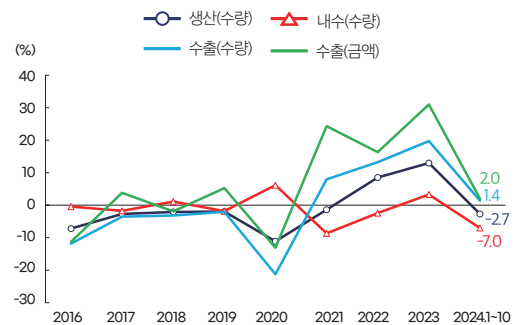
- 수출시장 수요의 견고한 성장으로 전체 수출은 양호한 실적을 기록중이나 증가세는 둔화
- 내수 판매는 소비심리 위축과 차량 구매 여건 악화 등 부정적 요인으로 하락세 지속

※ 연간 수출량(2024.10, 만대, 산업부) : 138.9(2021) → 147.2(2022) → 184.3(2023) → 230.6(2024),
연간 내수 판매량(2024.9, 만대, 산업부) : 118.8(2021) → 108.2(2022) → 118.1(2023) → 133.5(2024)
※ 전체 판매량 대비 수출 비중(%) : 58.6(2022.Q1) → 56.0(Q2) → 58.5(Q3) → 58.6(Q4) → 60.1(2023.Q1)
→ 61.4(Q2) → 61.1(Q3) → 61.7(Q4) → 64.7(2024.Q1) → 64.9(Q2) → 60.3(Q3)

전망 트럼프 정부의 완성차 관세 인상과 친환경차 시장 축소로 국내 기업의 수출과 수익성 악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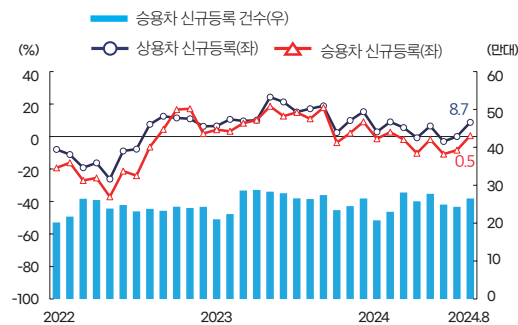
- 내수 판매는 누적된 대기 수요 해소와 구매 여건 악화로 더딘 회복이 예상돼 생산부문 증가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
- 완성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시 국내 기업의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며, 미국 내 생산 시설 안정화를 통한 자체 생산 물량 극대화 등 대응 필요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주: 전년 동기 대비
자료: 산업부(자동차산업동향),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미국 신규 자동차 등록 추이



주: 전년 동기 대비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BEA,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조선



현황 LNG선 중심의 고부가 가치 선박 수요 확대와 선가 상승으로 수출과 생산 모두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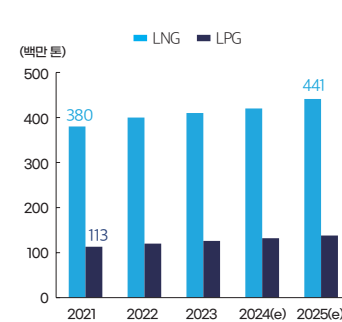
- 액화천연가스 및 메탄올 추진 친환경 선박의 수요 증가와 함께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선과 컨테이너선의 수출 확대가 이어지는 상황
- 선박 공급 부족으로 신조선가도 2008년 최고가의 98.7% 수준까지 근접하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 선가 상승 시기인 2021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수주 물량에 대한 인도가 이루어지며 선가 상승 분이 반영, 국내 업체들도 연간 수주 목표를 대부분 달성

※ 클락슨 선가지수(1988년, 100 기준) : 138.8(2021.6) → 153.6(12) → 161.5(2022.6) → 161.8(12) → 189.6(2024.10)
※ 국내 기업 연간 선박 수주 잔량(만CGT, 통계청) : 2,296(2020) → 2,950(2021) → 3,743(2022) → 4,003(2023) → 3,912(2024.8),
국내 조선社 3~4년치 작업량에 해당

전망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연료 친화적 정책으로 LNG선의 수요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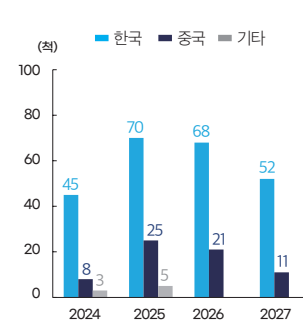
- LNG·LPG선의 수요 확대와 함께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수요가 내년에도 이어지고, 선가 상승 흐름도 지속될 전망
-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의 부각으로 노후화된 함정의 유지보수(MRO), 신규 함정 건조에 대한 수요 확대 등 추가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태

LNG·LPG 세계 물동량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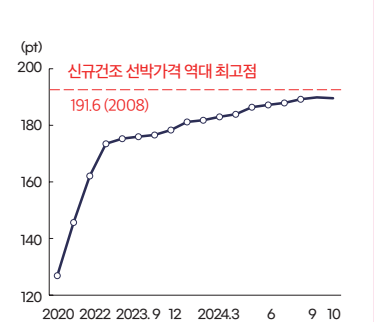
주: e는 전망치
자료: Clarkson research (24.9)

한·중 LNG 운반선 수주 잔량



자료: Clarkson research (24.9)

신규건조 선박가격 지수



주: 1988=100
자료: Clarkson research(Clarson New Building Price Index)

생산

설비투자

자금사정

소상공인

중소기업 정책

Chapter 3.

중소기업환경

중소기업 경기

생산



현황 수출 회복이 반도체 등 일부 업종 및 대기업에 편중되며 중소제조·서비스업 생산은 정체 지속

- **제조업** 2024년 상반기 제조업 생산은 단순 등락을 반복하며 대기업 대비 부진한 모습, 출하(판매) 감소 및 재고 증가로 생산 부담 가중

※ 중소 제조업 출하 지수(1~9월 평균, 기준=100, 통계청) : 99.0(2022) → 99.7(2023) → 97.5(2024)
중소 제조업 재고 지수(1~9월 평균, 기준=100, 통계청) : 95.7(2022) → 96.1(2023) → 98.1(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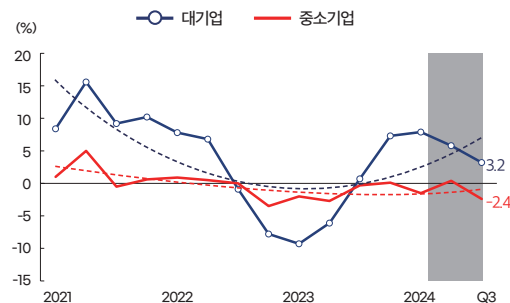
- **서비스업** 소비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비스업 생산도 정체, 특히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부진 장기화 양상

※ 서비스업 생산 지수 증가율(1~9월 평균, 전동비, %, 통계청) : 도·소매업 3.2(2022) → △0.3(2023) → △2.8(2024) /
숙박·음식점업 19.7(2022) → 2.3(2023) → △1.7(2024)

전망 내수 수요 개선 등 경영 여건 완화에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대외 불안으로 경기 개선 지연 우려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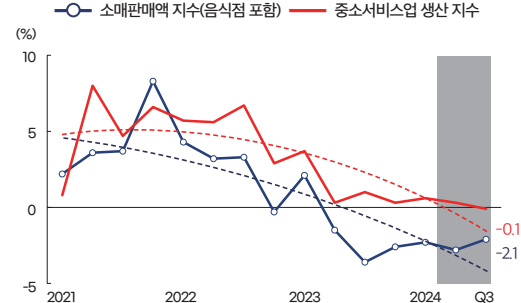
- 금리하락 기대 속 제조업 전반의 업황 부진 완화가 예상되며 가계소비 여력 확대로 필수 소비재 지출 또한 증가 전망
- 미국의 수입 관세 인상은 對美 수출 중소기업 실적에 직접적 악영향, 또한 대중 견제 강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 추가 타격 불가피

대·중소 제조업 생산 지수



주: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자료: 통계청

소매판매액 지수·중소서비스업 생산 지수



주: 불변지수,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자료: 통계청

설비투자



현황 비용 부담과 내수 부진에 따른 체감 경기 악화로 가동률은 정체, 설비투자 증가 또한 미미한 수준

- 남동·반월·시화 등 주요 산업단지 및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년과 유사, 재고 증가로 연초 개선되는 듯 보였던 설비투자 또한 정체된 상황
- 생산비용 상승, 판매부진 등 투자 제약 요인*과 함께 다수의 중소기업이 내수 경기회복 시점으로 2026년을 지목하며** 설비투자 관망세 지속

*제조업 투자 제약 요인(2024.5월, %, 대한상의) : 31.2(생산비용 증가) > 25.9(수요·판매 부진) > 21.1(고금리 지속)

**「중소기업 경영여로 및 2024년 하반기 경기전망 조사」, 2024.6월 중기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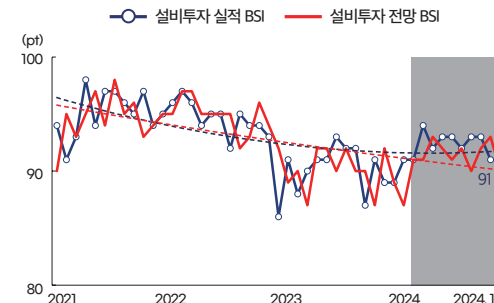
전망 투자여건 개선 기대에도 불구하고 실적 부진 장기화로 위축된 투자심리 개선에 상당 기간 소요 예상

- 금리인하기 진입에 따른 대응으로 기업은 설비투자를 적극 확대하기 보다 부채상환 등 재무구조 건전화에 통한 투자 여력 확보를 우선시 할 가능성

※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부담 경감 시 중소기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취할 조치(2024.8월, %, 대한상의) : 65.8(부채상환 등 재무구조 건전화) > 23.3(설비투자 확대) > 5.5(신규인력 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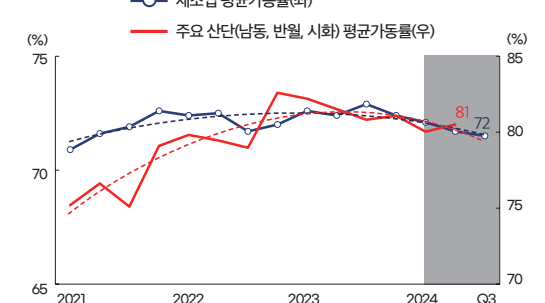
-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2025년까지), 중소·중견기업 전용 시설 자금용자·보증확대 집행 등 정부의 내수 경기회복 지원이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

중소기업 설비투자 실적·전망 BSI



주: 계획대비 수정감액<100<계획대비 수정증액
자료: 한국은행

제조업 및 주요 산단 평균가동률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

자금사정

**현황** 고금리에 따른 불리한 조달 여건과 수익성 악화로 중소기업 자금사정 곤란 장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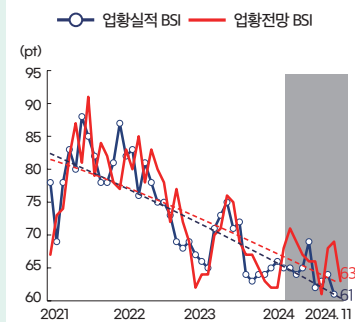
-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2024년 중소기업 자금 사정은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을 지속하며 꾸준히 하락 추세
- 금융비용 부담과 함께 매출 부진과 원자재 가격·인건비 상승은 중소기업의 자금 여력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

※ 중소기업 자금 사정이 곤란한 주된 원인(2024.8월, 복수응답, %, 중기중앙회) : 72.2(판매·매출 부진) > 33.2(원·부자재 가격 상승) > 24.9(인건비 상승) > 15.1(판매대금 회수 지연)

전망 은행권 리스크 관리 강화로 차입여건 양극화 불가피, 자금 사정 개선 또한 실적 확보 기업으로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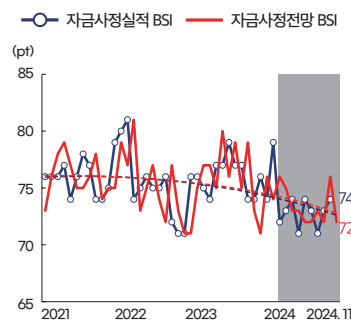
- 중소기업 신용위험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저신용·실적부진 기업 부실 우려에 따른 은행의 보수적 대출태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 ※ 국내 은행 중소기업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 금감원) : 0.27(2021.12) → 0.32(2022.12) → 0.48(2023.12) → 0.78(2024.8)
- 이익 개선 기업의 경우 재무구조 건전화로 인해 자금조달 시 이점을 누림과 동시에 창출한 영업 활동 현금흐름을 통해 추가 여력 확보 가능

중소기업 업황 실적·전망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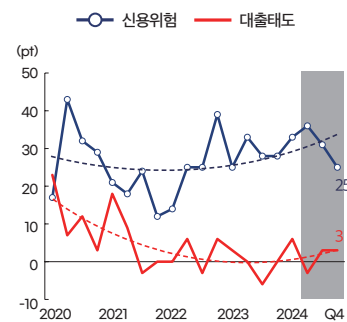
주: 나쁨<100<좋은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 자금사정 실적·전망 BSI



주: 악화<100<호전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 신용위험 및 대출태도



주: 신용위험 감소<0<증가, 대출태도 강화<0<완화
자료: 한국은행

소상공인

**현황** 내수 부진 장기화 속 가계 구매력 약화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 경영난 지속

- 2024년 개인사업자 카드 매출은 감소세 지속, 특히 내수 의존성이 높은 숙박·음식점은 다른 업종 대비 실적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며 부진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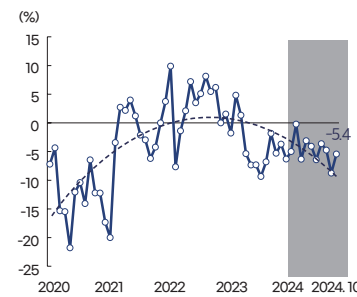
※ IBK 개인사업자 카드매출 증가율(전동비, %, IBK) : 전체 △6.3(2024.3) → △6.4(6) → △8.8(9) → △5.4(10) / 숙박·음식점업 △10.5(2024.3) → △11.9(6) → △9.4(9) → △8.5(10)

- 경기 전반에 대한 소상공인 체감지수 또한 전년 대비 모두 악화, 자금사정에 대해서도 부정적 응답이 다수
- ※ 소상공인 경기 동향체감 BSI(10월, 악화 < 100 < 호전, 중기부) : 경기 전반 62.7(2022) → 69.6(2023) → 69.1(2024) / 자금사정 65.3(2022) → 71.8(2023) → 71.2(2024)

전망 경기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적 악화 및 채무누적으로 회복에 장기간 소요 예상, 정책 효과가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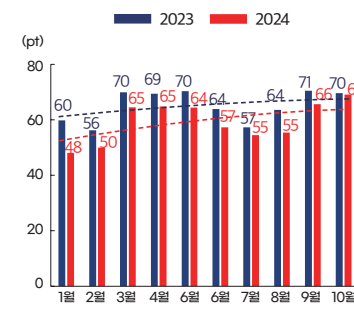
- 개인사업자 연체율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소득·저신용, 다중채무자 등 취약부문 대출 비중이 상승하며 자영업자 채무상환 능력 차별화 추세
- ※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대출 비중은 10.5%(2023.2Q)에서 11.5%(2024.2Q)로 상승, 대출 연체율은 10.15%로 비취약 자영업자(0.44%)를 상회, 『금융안정 상황』, 2024.9월, 한국은행)
-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재기지원 등 경영상황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2024.7월), 향후 지원과제 지속 발굴 및 추진상황 점검 계획

IBK 개인사업자 카드 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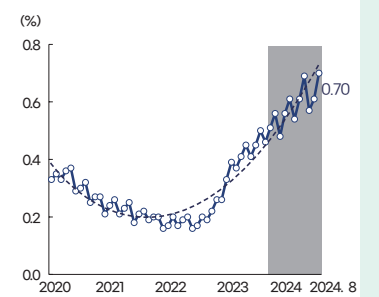
주: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매출증가율 분포의 중앙값
자료: IBK

소상공인 경기동향 체감 BSI



주: 100 초과 경기 호전, 100 미만 경기 악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사업자 연체율



주: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1월 이상 원리금 연체)
자료: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정책



중기부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은 지속, 동시에 '스타트업 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지원 강화

- **2024년** _ 건전재정 기조 하에 약자보호라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중점,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높은 가중치
- **2025년** _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함께 新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마련

* ① 대기업 링크업 협업 지원 ② 딥테크 스타트업 밸류업 ③ 新산업분야 스타트업 법률 지원 ④ 글로벌 스케일업 팀스
⑤ 테크 서비스 수출 바우처 ⑥ 재외공관 제안형 글로벌 진출 등

금융위 서민금융·지역활성화의 중요도는 유지, '기업구조 개선'에서 '미래성장 동력 확보'로 기조 이동

- **2024년** _ 경기 하방 압력으로 중소기업 재기 지원 필요성 증대, 기업구조 혁신펀드 조성을 통한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 조정 활성화 유도
- **2025년** _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분야를 미래성장 동력으로 선정,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 프로그램 신설 및 반도체 생태계 펀드 신규 조성

2025년 중기부 예산안 주요 내용

구분 (억 원, %)	2024 본예산(A)	2025 정부안(B)	전년대비	
			증감(B-A)	증감률
①혁신 생태계 조성	15,283	18,220	+2,937	+19.2
②글로벌화	3,596	5,984	+2,388	+66.4
③지역·제조혁신	4,325	5,016	+691	+16.0
④소상공인·상권	43,921	49,231	+5,310	+12.1
⑤지속 가능한 성장	5,470	7,393	+1,923	+35.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2025년 금융위 예산안 주요 변화

구분(억 원)	2024(A)	2025(B)	증감(B-A)
1.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①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7600	5,000	-2,600
②햇살론15	900	900	0
2.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①청년도약계좌	5,000	3,750	+1,250
②지역활성화투자펀드	1,000	1,000	0
3. 미래성장동력확보			
①반도체 설비투자 및 생태계 펀드	-	2,800	+2,800
②혁신성장펀드	2,400	2,000	-400
4. 기업혁신·구조조정지원			
①기업구조혁신펀드	500	-	-500

자료: 금융위원회